

사진 : 김세호 에우세비오(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연중 제16주일

**제1독서** 지혜서 12, 13, 16~19

**화답송** 시편 86(85), 5~6, 9~10, 15~16가 (© 5가)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 - 고 용서 하시는 분이시옵 니 다.

1.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
2.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 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

3.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

**제2독서** 로마서 8, 26~27

**복음환호송** 마태 11, 25 참조

◎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음** 마태오 13, 2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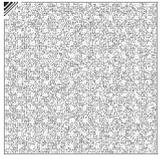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111(110), 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 밀인가, 가라지인가?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 복음의 핵심은 선불리 가라지를 뽑으려다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 듯하다. 어쩐지 이 말씀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 삶이나 잘 살아라.”하는 뜻으로 들린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를 비롯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라 의식하고 이방인은 물론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은 동족일지라도 무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다. 그리하여 평소 가난한 사람, 세리 등과 같은 미천한 자들과 어울리셨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밭에 초대된 밀이요 나머지는 그저 쳐내야 할 가라지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 오늘 복음을 낭개 한 마태오의 공동체는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선민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안의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행적이나 현재의 살고 있는 모습에 따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나?”하는 식의 차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쩌면 마태오는 이렇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편견과 잘못된 심판의식을 염려하여 이 글을 쓴 것은 아닐까?

세상에는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다. 오늘은 선하다가도 내일이면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흔히 교회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한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는 천사 같은 의로운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의 부정적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신자들도 서로를 비판하고 심판의 잣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끔 열심히 봉사하던 교우들이나 새 신자들이 기존 신자에 대한 실망으로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선인과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자신의 삶이나 충실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밀과 가라지의 공존은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안에도 존재한다. 내가 만일 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복음의 주인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라지라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자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당신은 밀입니까? 밀이 되고 싶은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밀인 줄 착각하는 가라지입니까?



방 삼 민  
가스발 신부  
김해성당 주임

## 지금 여기

## 작작이 발을 보며

아이가 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해보니 한쪽 발에만 양말을 신고 티셔츠는 앞뒤를 거꾸로 입었던군요.

아버지 생전에 위독하던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며칠 집을 비울 거 같아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도 하고 식구들이 먹을 밑반찬까지 만들어둔 후 기차를 탔습니다. 아버지께는 그랬었던군요, 제가.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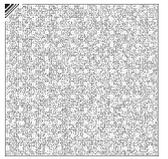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7.24(월)~25(화)  
방삼민 신부(김해성당 주임)  
7.26(수)~29(토)  
오창석 신부(감물생태학습관 부관장)

사랑이 있는 세상 **문자참여 #2340**  
월~목 12:15~14:00

7.25(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부산가톨릭고등학교생연합회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7.28(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최준익 막시모  
찬양사도들과 성가를 함께 부르는  
방청 신청 ☎ 600-8824



이 영 창 스테파노 신부

시장을 방문 중일 때 어떤 신자 분이 저를 보고 “신부님은 어느 본당에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기에 “저는 현재 시장사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자분이 대뜸 “부산시장님은 잘 계시지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市場)사목이란 말에 그 신자분은 부산시장(市長)님 사목으로 잘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사목이 무엇을 하는 사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사목이란 부산교구 관할 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사목입니다. 2003년 10월 시장사목 담당사제가 처음 임명되어 12월 27일 시장사목 출범미사를 주교님과 봉헌함으로써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재래시장을 방문하며 상인들을 만

납니다. 현재 부산진·남문시장, 부전마켓타운(부전시장),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골드테마거리(귀금속상가), 용호골목시장, 온천시장, 남항시장, 엄궁부산청과시장, 서면지하도상가부전몰, 남포지하쇼핑센터,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자갈치·건어물시장 등 14개 시장 및 상가 교우들을 대상으로 주일미사(토요일), 평일미사, 상우회미사, 상시 고해성사, 냉담교우 방문 및 면담, 신앙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는 냉담교우들이 많습니다. 3년~5년은 기본이고 20년 이상 냉담교우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활고 때문에, 바쁘고 피곤하다고, 생선·채소 등의 장사를 하면서 옷이 더러워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서 본당미사를 한번 두 번 미루다 보니 어느새 냉담교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을 찾아내어 고해성사를 주고 다시 신앙적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우며, 그들의 교적을 찾아 본당으로 연결하여 본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사목은 본당의 사각지대인 재래시장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잃은 양들을 찾아 본당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비신자들에게 세례성사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담교우들을 찾아 신앙을 되찾아주는 것, 본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선교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마태 18, 12)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시장사목은 재래시장에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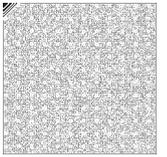
■ 시장사목 담당

### 환경과 생명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제법 긴 가뭄에 이은 마른장마를 숨 가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멜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실에서 벗어나긴 약간 이른 긴장감이 농촌의 들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이 터지고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해결책을 굳이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숲이 사라지면 바다도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도 바다도 서로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한쪽이 내뿜 숨을 다른 쪽이 들이마시며 공생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결국 자신이 지금 머무는 곳에서 제일 먼저 손에 잡히는 일, 당장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생명의 사슬로 온전히 이어져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위의 숲과 바다의 관계에 대한 예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라는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선물은 공기, 더 구체적으로는 산소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게 도와주는 그 산소의 70%는 저 푸르른 숲이 아니라 그 숲과 육지에서 보내준 영양소를 이용하여 얽은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바다식물에게서 비롯됩니다. 곧 바다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고, 또 그렇게 숲이 없다면 우리는 그 바다를 살릴 재간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순서를 매기는 행동이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환경을 살리는 일을 기획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마태 26, 22)라고 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핑계를 대며 물러나서도 안 됩니다. 이 짜증스런 더위를 이기는 것도, 나날이 파괴되어 가는 환경을 살리는 것도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장 현 희 카타리나

올해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지 5년째가 된다. 늘 새 학기가 되면 '이번에는 또 어떤 아이들과 만나게 될까?' 하고 설레기도 한다. 내가 맡은 첫영성체반은 본당 전체 대상 가정에게 미리 공지가 가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빨리 시작된다. 대부분의 본당은 한 달이나 3개월 집중교리로 하고 있지만, 우리 본당은 일 년 가정교리이기 때문에 어린이도 부모님도 똑같이 일 년 간 고생(?) 해야만 한다. 이런 교사들의 고충을 아셨는지 새로 부임하신 보좌 신부님께서 "올해는 신청기간을 2월 말까지로 칼같이 지켜서 선생님들 힘들지 않게 하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주보며 공지문자에 또 칼같이 '기간엄수'를 넣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신부님이 미사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셔서 인지 신청 마지막 날에 여덟 가정이나 신청하시고 38명으로 마감하

게 되었다.

하지만 3월이 되고 뒤늦게 신청하고자 하는 몇 가정이 생겼다. 이미 교리도 시작되었고 최종 인원으로 명단이 다 만들어져 '이번에는 신부님 말씀대로 원칙을 지켜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신청 기간이 지나서는 받지 말라던 신부님께서 "이렇게 교리를 받고자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매정하게 기간이 지났으니 내년엔 오시라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오히려 교사들을 설득하시는 게 아닌가. 참으로 난감했다. 원칙을 지키자니 쉬는 교우를 또 다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게 되고, 원칙을 어기자니 "기간이 지나고는 받지 않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라고 말했던 것이 부끄럽게 되니 말이다. 선생님들과도 여러 번 의논하고 신부님, 수녀님 과도 수차례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부모님의 의지가 강한 가정은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들도 결정 내리는데 무척 고민되었지만, 신부님과 상담하고 또 결정이 나기 전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을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신부님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는 바리사이파 같이 느껴졌고, 신부님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는 예수님같이 생각되어 무척 부끄러웠다.

해마다 첫영성체반을 하다 보면 바쁜 일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던 가정이 다시 성당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아이가 첫영성체 교리를 받을 뿐인데 아이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도 성당으로 오게 되니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 우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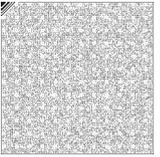
### 개신교에서는 하느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고 그러고 가톨릭은 '야훼' 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요?

281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는 본래 자음만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표기할 때 'קפ'라고만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후손들이 점점 읽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원후 7~8세기경부터 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음을 만들어 붙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에 어떤 모음을 붙여할 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 위해 그냥 '하셈' (그 이름) 혹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라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 때문인데, 오늘날 가톨릭교회도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은 "주님"이라고 친한 고딕체로 표기합니다. 히브리인들도 주님의 이름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생겨난 표기가 יהוה입니다(이것은 히브리어 모음규칙이 적용된 표기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던 현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이름을 표기된 그대로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야훼'였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고,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대부분 이를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인 '야훼'의 축약형은 '야'이며,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즈카르야 등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 농민 주일 행사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김인한 신부의 미사 강론 중



지난 7월 16일(일) 교구 내 많은 본당에서는 스물두 번째 농민 주일을 맞아, 특강 및 동영상 상영, 우리농산물로 만든 먹거리 나눔 및 판매, 쌀지킴이 회원 모집, 떡메치기 체험, 우리농산물 제대 꾸미기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행사 - 교황청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내한 공연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화) 부산 KBS홀에서 교황청 시스티나성당 합창단 초청 공연이 있었다. 이날 부산가톨릭음악협회(지도 : 임석수 신부)의 공연, 황철수 주교의 축하 인사, '부산교구 60년을 돌아보며' 동영상 상영도 있었

다. 시스티나성당 합창단은 그레고리오 성가, 르네상스 음악, 전례 음악 등 총 12곡(앙코르 포함)을 선보였으며, 공연 내내 신자들의 가슴을 적시는 천상의 화음이 울려 퍼졌다. 손삼석 주교는 “시스티나성당 합창단의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이 음

악에 녹아있는 가톨릭의 역사와 정신에 잠겨드는 경험”이라며 “오늘날의 교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산교구 60년을 돌아보며'  
동영상 바로보기



## 무거성당, 본당 복음화를 위해 총력



무거성당(주임 : 김윤근 신부, 회장 : 송명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은 본당 복음화를 위해 각 분과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선교분과와 구역분과에서는 우리 가족 찾기(쉬는 교우 회두), 한마음 체육대회(탁

구, 족구 등)를 약 5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진 및 가훈 전시, 혼인 갱신식, 명사 초청 특강, 성경도전 골든벨, 음악회, 아나바다 장터, 공로상 시상 등 본당 공동체의 활력을 북돋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윤근 주임신부는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더욱 성숙된 신앙공동체의 모습으로 지역복음화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6기 사회교리학교 입문과정 수료미사

지난 7월 12일(수) 가톨릭센터에서 ‘제6기 사회교리학교 입문과정 수료미사’가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10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된 사회교리학교는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교육했

며, 56명의 수강생이 수료했다.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 김준한 신부) 주관



## 송도성당, 피서지 가두 선교



7월 2일(일), 9일(일) 송도해수욕장 일대  
주임 : 김지향 신부, 회장 : 이혜수 데레사

## 달맞이성당, 혼인 갱신식



7월 9일(일) 21쌍 부부  
주임 : 전재완 신부, 회장 : 이경훈 베네딕토

선종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6.7.25. 방주섭(스테파노) 신부님

## 2019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집 및 피정

· 7.29(토) 13:30~30(일) 13:00  
· 부산 은혜의 집  
대상 :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 일반  
문의 : 629-8760 ※ 2019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할 지망자는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제4기 성모어머니학교

· 10.19~11.16 매주 목 10:00~15:00(총 5주 과정)  
· 교구청 5층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종교 무관)  
문의 : 010-2202-0470, 010-8822-1993

## 제9기 성요셉아버지학교

· 10.21~11.18 매주 토 15:00~21:00(총 5주 과정)  
· 부곡동 한국외방선교수녀회 강당  
접수 : 8.16(수)~9.30(토), 선착순 49명  
대상 : 자녀를 둔 아버지(종교 무관)  
문의 : 010-6408-6111, 010-3460-0696

##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 노동사목 바자울미사(후원미사)

휴가기간과 겹쳐 7월 바자울미사(7.27)는 없습니다  
(8월 - 노동사목 수련회) / 문의 : 441-6403

## 군중후원회 미사

부산 : 7.27(목)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 박종석 신부(해병사령부 해병중앙성당)  
문의 : 751-3610

##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7.28(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 부산교구 하늘공원

† 미사 : † 셔블버스 운행  
매주 토요일 09:00 남천동 교구청  
10:00 온천장 전철역(1번 출구)  
오전 11시 3층 경당 10:30 양산 전철역(2번 출구 건너편)  
※ 운영 시간 :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 관리사무실 Tel. 055)374-8732~3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서울공예사**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아)631-5006, 631-5007  
황인환(가를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애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대청동 (구)미문화원 맞은편  
**오민웅 (다미아노)**  
정신건강의학과  
461-0303

하지정맥중점클리닉  
**길맥외과의원**  
센텀시티역 11, 13번 출구  
임페리얼타워 15층  
754-9975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혈공단검진  
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안서룡, 이정연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업, 박상욱  
554-1088/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제이스 귀금속**  
최신형 패션제품, 예물과 커플링  
목주반지, 남성용 주얼리 전문매장  
633-4549, 634-4539  
박정희(요셉), 손혜경(요세파)  
010-8661-3631, 010-3558-3630  
범일동역 12번 출구 중앙귀금속상가 125호

갑상선 · 당뇨 · 고혈압 · 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 용 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생 및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제51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 · 중 · 고 : 1/6~2/11  
아일랜드 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 · 일반 : 1/2~2/11  
세계 연수생들과 함께  
02-3446-4253 그린피스이엔티  
후원 : 카푸친 작은 형제회

**동국주단**  
부산일보 강소상인 한복  
변관현(시몬) 최상희(안나)  
(본점) 부산진시점(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643-7070, 010-9243-5776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교구 철야기도회 (주간자모임)  
· 7.28(금) 22:30~다음날 04:00  
강사: 박갑조 신부(맑은하늘피정의집 관장)  
- 젊은이 성령기도회

· 7.24(월) 19:30 전포성당  
· 7.26(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수요치유기도회  
· 7.26(수) 11:00~16:00 / 점심 제공  
버스시간(카드시간표 참조)  
- 교구 성령목상회

제429차 : 7.28(금) 10:30~30(일) 17:30  
제430차 : 8.4(금) 10:30~6(일) 17:30  
회비: 10만원, 교재비: 5천원  
10: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회비를 미리 입금하여야 정식 접수됩니다)  
농협 355-0003-3053-83 영성의집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7.27(목) 20:00~23:00  
강사: 박주병 형제(서울대교구)  
- 100단 목주기도(미사, 안수) / 점심 제공  
· 8.21(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교구형평 시복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  
· 7.29(토) 09:00(11:00 미사) / 개인 도시락 지참  
· 삼랑진역 출발, 김범우모 순례  
기차: 부산역 07:50 출발, 구포 08:04  
개인 도시락 지참 / 문의: 622-5588(평협)

**Arca 직장인 창세기연수생 모집**  
연수: 8.5(토)~6(일), 12(토)~13(일)  
대상: 청년성서 창세기 그룹원  
마감: 7.28(금) / 회비: 12만원(학생 지원가능)  
문의: 469-0761, cafe.daum.net/psbiblefamily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463-7866**  
상담: 월~금 10:00~16:30(중주 대청동)  
내방상담: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박사) 및 전문상담사

**시각장애인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 매주 화 15:00~17:00 / 문의: 464-3909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462-1870(행정실)

**교육 · 모집 · 기타**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회와 미사**  
· 7.25(화) 14:00 · 서면성당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주례: 구주축회 신부 / 문의: 010-7132-6379

**파주 올리베따노수도회 후원 미사**  
· 7.25(화) 14:00 · 성남도 은혜의 집(광안리)  
문의: 010-9344-3771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후원회 미사**  
· 7.29(토) 11:00(별일성당 입구 김안과 09:00 출발)  
· 양산 무아의 집 / 문의: 010-3355-4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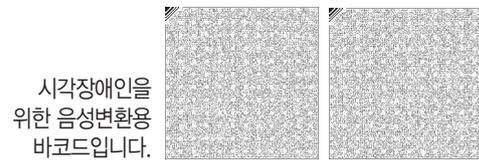
**서구총합사회복지관 영양사(조리가능자) 구함**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본, 자격증사본  
모집: 7.26(수)까지 / 문의: 253-1922(김선아)

**중고생 살레시오(3S영성 리더십)교육(P과정)**  
· 8.10(목), 11(금), 12(토) 09:30~16:30  
(단, 마지막날 11:00부터/부모님 초대)  
G,P,S과정 수료자: VIDES(살레시오 국제자일 봉사단)가입가능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심리상담 강좌 <위니컷>**  
· 9.4~11.20 매주 월요일 10:00~12:15(10주)  
내용: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발달과정, 부모자녀 관계회복  
문의: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9.1(금)~14(목) · 독일 수도원 기행, 오스트리아  
성모성지, 이태리 일주 순례 / 415만원  
독일항공, 부산 출발 / 문의: 010-3837-643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모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02)764-4741~3, www.holyfca.or.kr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  
· 9.5~2018.2.25 매주 화요일 14:00~16:00  
야간 - 매주 화요일 19:00~21:00 (6개월)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15만원(분납 가능)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업오신 성심  
특혜: 레지오 및 쉐 단원 5명 이상 함께 오시면  
12만원 / 문의: 634-4845, 010-9620-4820

**힌돌실버타운, 힌돌요양센터 입소자 모집**  
[힌돌실버타운] 독립생활 가능한 60세 이상 입소  
신관(20평형) 구경하는 집 오픈  
기존세대(17/25/34) 빠른입주 가능  
문의: 758-6231, 010-5574-6231  
[힌돌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1~4등급)  
입소 / 문의: 751-0561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8.4~6, 9.8~10 시작 17:30  
8.7~15, 8.21~25, 9.21~29, 10.16~20 시작 14:00  
이나시오 영성수련: 8.7(월)~15(화) 시작 14:0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기본 1, 2과정)  
: 8.11(금)~13(일) 시작 15:00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강사: 권민자 수녀  
3박4일 피정: 8.24(목)~27(일), 9.14(목)~17(일)  
8박9일 피정: 8.9(수)~17(목), 9.19(화)~27(수)  
청년 피정(35세 미만): 7.29(토)~8.1(화)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실천교리교육 창시자초청 연수**  
1차: 10.14(토) 14:00~15(일) 17:00  
2차: 10.16(월) 14:00~17(화) 17:00  
· 경기도 파주 민족화해센터 피정센터  
대상: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각 기관의 인성  
교육담당자 / 문의: 노태달실천교리교육연구소  
010-8829-6292, www.ndrpp.or.kr 참조

<p><b>인간존중·생명사랑 정신을 구현하는</b></p> <p><b>부산가톨릭대학교 학과 안내</b></p> <p>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신 경영인 양성의 산실인</p> <p><b>경영정보학과</b></p> <p>www.cup.ac.kr</p>	<p><b>부산성모병원 산부인과</b></p> <p><b>외음부 수술 · 골반장기 탈출증 수술</b></p> <p>부산성모병원 산부인과는 여성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여의사 진료 가능)</p> <p>문의: 933-7226(산부인과)</p> <p>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p>	<p><b>가톨릭센터</b>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p> <p>가톨릭센터 무료 대관 신청 안내</p> <p>대상: 작가 지망생, 아마추어 시각예술 단체 및 개인 장소: 마음밭갤러리 / 기간: 수시 일상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여러분들께 전시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p> <p>신청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p>
-----------------------------------------------------------------------------------------------------------------------------------------	-----------------------------------------------------------------------------------------------------------------------------------------------------------------------------------------------	--------------------------------------------------------------------------------------------------------------------------------------------------------------------------------------------------------------------------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b>요양보호사</b> <b>국비교육생 모집</b> 직무교육 모집 818-1004, 245-1004 전사요양보호사교육원</p>	<p>재활전문 요양병원 <b>좋은애인요양병원</b>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 간호사 및 간병인 비율 부산최고</p> <p>뇌졸중 / 중풍 / 통증 / 척추손상 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내/외과계 한방협진 안락로타리 병생병원 옆 T. 520-7700</p>	<p><b>동래로타리</b> <b>독일보청기</b>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3호선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b>성모치과</b>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b>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의</b>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박인호(루카), 한경문 소화기 내과: 최행택, 유찬희, 남화성 류마티스 내과: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의: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걸진: 이우희</p> <p>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p>
<p><b>뉴옥스마일</b> <b>교정전문치과</b> 박 현 정(마리아) ABO공인, 미국교정전문의원 비수술 주걱턱 인면비대칭 립톤 돌출입 어린이 주걱턱 702-6677</p>	<p><b>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b> <b>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b>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아교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50년 전통 <b>명신당</b>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부산은행 범일점 맞은편</p>	<p>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b>동부증권</b> 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팀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p>	<p><b>광명재가노인복지센터</b> 방문요양, 방문목욕 만 65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가족처럼 정성껏 돌봐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모집, 교우분 우대 강 중 권(토마스), 김 태 순(안젤라) 752-6516, 010-7597-9264</p>